

버려진 물건의 부활

환경 전시 2편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날 수 있고, 무등산 자락에서도 작품이 전시된다.

지구는 살아 움직인다

무등현대미술관·무등산국립공원 14일~10월 31일

롯데갤러리 광주점 30일까지...가방·팔찌 등 디자인 작품 선봬

알루미늄 캔뚜껑으로 만든 클러치백, 폐현수막으로 만든 캐리어 가방, 폐잡지를 활용한 주얼리 팔찌, 로프로 만든 바구니. 버려진 물건들에 또 다른 용도를 입힌 다양한 업사이클링 디자인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롯데갤러리 광주점은 지역 잉여자원 재활용 디자인 전시 '잉여의 쓰임 IV-From Upcycle, To Fashion'전을 30일까지 진행한다. 광주 동구도시재생선도지역 파일럿 사업으로 추진,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전시는 업사이클링 콘텐츠 개발과 함께 지역민과 민간, 기업의 협업을 통해 신진디자이너를 발굴하고 지역문화와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재)광주디자인센터, 광주대 패션주얼리 학부 등 전문 기관과 새빛아마드도아열, 행복한쓰임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가 참여했다.

전시는 모두 4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첫 섹션 '광주시 동구 잉여자원 DB 10종 아카이브'는 동구에서 버려지는 순환자원들을 선별해, 상품화 가능한 소재를 제시하는 섹션이다. 두 번째 섹션인 '국내외 업사이클 제품 + 소재전시'에서는 로프로 만든 다기능 바구니 등 총 30여개 상품을 만날 수 있다. 소재와 제품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전시, 제품에 쓰여진 소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역 주민과 영디자이너(KDM) 협업 콜라보레이션' 섹션에서는 젊은 디자이너들과 지역주민들이 협업을 통해 디자인하고 제작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소비자의 반응을 살피고 시장 테스트를 거쳐 실제로 상품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주성씨는 동명동의 많은 카페에서 쓰고 버리는 휘핑크림 용기를 활용해 원형 거울과 주민들의 손그림을 결합한 볼펜을 디자인했으며 김수연씨는 시립도서관에서 버리는 책으로 종이가방을 디자인했다. 또 박주성씨는 주민들과 소방호스로 의자, 가방, 파우치를 만들었고 김영선씨는 인쇄거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폐잡지로 종이비즈 액세서리를 디자인했다. 그밖에 대인동 전자거리에서 버려진 폐전선을 활용한 전선네트백도 눈길을 끈다.

전시 기간 중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인 '업사이클링키링 아트'도 진행된다. 문의 062-221-1808. /김미은 기자 mekim@



R.ESCAMA 작 '알루미늄 캔 뚜껑으로 만든 클러치'



김영선 디자이너와 다손공방 주민들이 폐잡지를 활용해 만든 팔찌.

잉여의 쓰임 IV
From Upcycle,
To Fashion

환경미술제 플라워 무브먼트
FLOWER MOVEMENT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무등현대미술관은 지난 2013년부터 '지구 환경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의미로 환경미술제를 열고 있다. 갤러리 공간 뿐 아니라 무등산 구석구석에 작품을 배치해 산을 찾는 이들이 한번쯤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12명의 작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풀어내는 '제6회 환경미술제 플라워 무브먼트, FLOWER MOVEMENT'전이 오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제1·2전시실과 무등산 일대에서 열린다. 무등현대미술관과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훈)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2018 광주비엔날레 기념전으로 마련됐다.

각각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은 '환경'을 매개체로 특별한 작품을 전시한다. 무등현대미술관 제1·2전시실에서는 김수옥·김용근·김용안·심우채·윤운택·한미경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며 무등산국립공원에서는 김관삼·오순영·이정기·전민준·조성숙·최희원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김수옥 작가의 'Eco Blooming'은 오직 태양광을 통해서 자연 발생되는 염색법을 통해 아토피, 탈모 등 인체에 해를 가하는 현대병에 대항하는 천연염색법을 보여준다. 김용근 작가의 '하늘을 날고 싶은 생명'은 1kg의 향유 기름을 얻기 위해 2만kg 이상의 고래를 학살하는 인간의 잔인성을 폭로한다.

또 김관삼 작가는 작품 '공생'에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는 풍경을 담았으며 '시대의 유물-화석(fossil)'을 전시하는 이정기 작가는 죽은 생물체의 모습을 화석과 같은 형태로 제작해 환경의 심각성과 실태를 직접적인 시각효과를 통해 느끼게 한다.

오프닝 행사 14일 오후 6시. 문의 062-223-667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수옥 작 'Eco Blooming'



심우채 작 'Silence'

애꾸눈 광대-어머니의 노래 마지막 상설공연

19·20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애꾸눈 광대-어머니의 노래' 마지막 상설공연이 오는 19일과 20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애꾸눈 광대'는 5월 광주의 진실과 정신을 알리고자 기획된 연극으로 당시 현장에서 투쟁하다 한쪽 눈을 잃은 이지현씨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난 2013년 초연을 시작으로 6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어머니의 노래'를 부제로 굴곡진 현대사를 살아낸 우리네 어머니 이야기로 새롭게 각색했다.

김원민이 각색하고, 연출은 이형원(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대표, 한국소극장협회광주지회장)이 맡았다. 이세상(지



현), 김안순, 이현기, 노희설, 정경아, 최용규, 한종신, 최효주 등 광주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출연한다.

한편 '애꾸눈 광대-어머니의 노래'는 지난 5월부터 상설공연과 순회공연을 진

행해왔으며, 순회공연은 11월까지 광주·전남지역 학교 및 유관기관을 찾아가 6회의 공연을 선보인다. 선착순 100명 무료 관람. 문의 062-670-794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을나무-생명의 열매' 최인옥 사진전

LH 휴양갤러리 28일까지



최인옥 사진전

최인옥 사진전인 오는 28일까지 LH한국토지공사 1층 휴양갤러리에서 열린다.

6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의 주제는 '가을나무-생명의 열매'다. 광주주향교회 담임목사인 최작가는 지금까지 '겨울나무', '봄나무', '호수' 등을 소재로 꾸준히 개인전을 열어왔다.

작가는 "사계절 중 가을나무는 가장 아름다운 빛깔의 옷을 입고, 갖가지 색깔로 영글어간 과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어머니같은 나무로 그 모습을 영글에 담고 싶

었다"고 말한다.

전시에서는 단아한 사철의 지붕과 절묘하게 어우러진 단풍나무, 빛과 그림자의 대비가 아름다운 자작나무, 붉은 열매를 달고 있는 갈나무를 만날 수 있다. 또 석양무렵 지는 해와 함께 서 있는 나무는 아련한 느낌을 전해주며 피사체를 다양한 각도에서 잡아낸 작품은 색다른 감성을 전달한다.

최작가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이며 무등미술대전 추천작가다. 사진대전 및 전국 공모전에서 50회 이상 수상했으며 한국사진문화상 출판상도 받았다. 문의 062-360-339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2018 신양파크호텔 **객실 리모델링 기념 가을축제** 기간: 2018. 9. 1(토) ▶ 11. 30(금)

축제 1 객실 가을 패키지 & 한가위 패키지 (9.22 - 26 (5일간))
객실 리모델링 기념
가을 패키지 **60% DC**
한가위 패키지 **70% DC**

축제 2 1층 레스토랑 '테마니' 스파게티 & 스테이크 축제

커피	3,000원
스파게티	13,000 ~ 16,000원
스파게티 코스 (스프+샐러드+스파게티+커피)	22,000원
돈가스 코스 (햄+스프+샐러드+돈가스+디저트+커피)	18,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햄+전채요리+스프+샐러드+스테이크+디저트+커피)	50,000원

축제 3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
1층 티파니 이용고객 ₩15,000당
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
(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

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 (062)228-8000, 221-4101